

現代 景觀 意味에서 照明해 본 韓國의 傳統景觀 — 曲과 景을 中心으로 —

崔 杞 秀

서울市立大學校 文理科大學 造景學科

A Study on the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in the View of the Meaning of Contemporary Landscape

Choi, Key So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ollege of Liberal Art
and Science, Seoul City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is studied on the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in the view of the meaning of the contemporary landscape. The landscape architecture is expanding in the various research field of landscape. The seven concept of landscape can be divided as a regional concept, a land-form concept, an ecological concept, a land use concept, a heritage concept, a scenery concept, and a park and garden concept.

This paper is deal with 985 kyoung(景) in 104 places and 16 Gok(曲) in 16 places as the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The object of landscape is generally focus on a reality as well as an unreality. In kyoung and Gok, the landscape is organized as an order of a small universe. The expression of the structure of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is the fifth dimensional space which is organized by the third dimensional space with a time, an image and a feeling.

I. 序

「景觀을 造成하는 綜合科學藝術이 造景學의 정의」¹⁾로써 흔히 쓰여진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景觀의 의미는 무엇인가? 造景學은 학문이 발전되어 오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視覺的인 아름다움만을 景觀의 의미로 使用하지는 않고 있으며, 機能性·便宜性·利用者의 選好와 滿足性이나 經濟性으로 혹은 自然的이거나 文化的인 측면에서 觀察·評價하는 方法이나 景觀의 構成과 解析理論등의 接近方法 그리고 特性등을 研究하여왔다. 造景人들은

視覺的인 滿足으로 이끌기 위한 人間의 心理的인 過程에 따른 表現과 景觀 選好등을 科學的인 方法의 모색으로 쾌적한 環境을 조성하거나, 生態的인 分析方法등에 의한 合目的이고 科學的으로 土地를 利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景觀에 대해 研究해 온 概念을 정리하여 우리의 傳統景觀 造成과 比較함으로써 外部空間 造成 方向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景觀의 問題를 研究해 보려한다.

지금까지 觀察·分析·評價를 통해 景觀 造成에 대한 研究를 하게된 學問的인 背景은 造景學이라는 학문이 西洋에서 發達하여 우리나라에 수용되었기

1989년 8월 14일 접수된 논문임.

註: 1) 造景計劃論, 韓國造景學會 編, 文運堂, 1986, P.3

때문이다. 요즈음 우리는 “세계는 하나다”라는 말을 흔히 使用한다. 그러나 東·西洋의 차이는 외모에서 뿐만 아니라 人間內面에 깔려있는 根本인 思考에서도 큰 差異가 있다. 「美學序說」에 의하면 東洋人은 自然尊崇과 愛敬의 觀念을 가지고 自然의 造化내지 攝理를 깊이 觀察하고 自然과 더불어 生을 영위하며, 이에 順應하고 合致하려는 人倫의 基本的 態度에서 自然의 靈, 自然의 神氣 또는 氣韻을 直感토록 表現하였다. 그러나 西洋은 일반적으로 自然의 對立的인 態度에서 自然을 관찰·분석하고 實驗의 態度로 外的 可視의 自然을 재현함으로써 自然 그 자체와는 異質인 새로운 美的價値를 지니는 藝術美를 創造해 내려고 하였다.²⁾ 즉 自然價値와 藝術價値는 兩立될 수 없는 별개의 세계로 藝術家는 하등 人格의 精神에 구애되지 않았다. 그러면 韓國人의 景觀觀은 무엇인가? 西洋理論에 따른 景觀造成이 韓國人이 生活하기에 어떤 거부감이 없을지 생각해 보며, 現代化된 生活의 設計에서 우리 마음의 고향이 되는 실재는 없을지 하는 의도에서 이 문제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의문점에서 현재까지 연구한 내용을 문헌 조사를 통하여 景觀概念을 정리하여 보고, 韓國의 傳統景觀에 대해 지금까지 口傳되어 오거나 記錄되어 온 八景³⁾을 邑誌나 郡誌등 문헌조사를 통해 조사한 104處 985景을 分析하여 본다. 또 朝鮮時代 性理學의 影響으로 儒學者들이 九曲⁴⁾을 정하여 놓은 것을 傳統景觀의 造成으로 보고 思想의 背景과 立地經營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景觀을 어떻게 보았으며 利用·造成하였는가를 살펴 보려고 한다.

II. 造景學에서의 景觀

1. 景觀의 意味

景觀의 의미는 국어대사전⁵⁾에 의하면, 景致, 눈에 보이는 景色, 風景의 地理學的 特性和 특색있는 풍경 形態를 가진 一定한 地域을 이르며, 景致의 의미는 山水등 自然界의 아름다운 현상을 말한다. Webster

辭典⁶⁾에서는 自然風景을 나타내는 그림, 즉 風景畫나 지구의 表面 혹은 한번에 모든 實體를 파악할 수 있는 一部分의 領域을 말한다. 위와 같이 辭典의 인 의미에서 보면 一定한 地域에서 일별해서 파악되는 아름다운 自然的이고 特色있는 地型이나 현상을 일컬으며, 地理學에서는 自然景觀이나 文化景觀이라 分類하여 그 특성을 파악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景觀은 英語로 landscape라고 하므로 이 의미를 좀 더 고찰해 보고자 한다. landscape는 land와 scape의 合成語이다. land는 陸地나 땅의 의미로 地球의 基本的인 產物이며, 이것이 地形學的이거나 環境의 인 特性으로 묘사되고 보여질 때 landscape 즉 景觀이 된다고 Michael Laurie는 말한다. 고로 景觀은 그 自體의 特性이나 땅에 대한 그리고 人間의 歷史의 인 影響에 따라 變化하며, 動的·自然的 그리고 社會的인 體系의 反應으로 보여지는 것이다.⁷⁾ 기술적인 用語로 알려진 landscape는 17세기 덴마크 화가들이 landschap로 風景을 그리는 藝術의 表現으로 使用되었으며, 그것이 動詞로 사용될 때에는 物理的으로 自然的인 景觀을 구축한다는 의미로 使用되었다. 15세기에 英語로 색슨(Anglo-Saxon)語로는 landskipe, landscaef 그리고 독일어로 landschaft로 使用되었는데, 다같이 라틴어의 한정된 지방자치기구의 의미를 가진 pagus에서 나왔다. 독일어인 landschaft는 때로는 영어로 都市의 行政區劃(ward)에 해당하는 크기에 상당하는 작은 行政單位로 쓰여지기도 하였으며, 같은 單語인 landscape도 美國人은 단지 自然的인 경치의 의미로 使用하지만, 英國人은 언제나 人間要素를 포함하여 사용하였다.⁸⁾

일단 景觀이라는 것은 視覺으로 인식되어지는 대상이 있는 것이며, 自然景觀에서는 自然的인 地形·物體·現象등을 이르며, 文化景觀에서는 人工環境의 實體, 즉 定住形態에 存在하는 개별적인 構造物과 構造物의 集團이 自然的인 背景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景觀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다. 즉 知覺하는 사람마다

註: 2) 美學序說, 白琪溍,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5, P.128

3) 景觀이라는 用語는 우리는 使用하지 않았다. 여기서 八景은 여덟 곳의 아름다운 景致를 일컬으며, 우리는 景觀이 빼어나거나 특색있는 큰 地域은 勝으로 空間的으로 地域보다 좁은 空間에서 주변의 특출한 景致를 景이라 하였다. (韓國의 산천, 손경석, 교양국사 총서 편찬위원회, 1976, P.249)

4) 九曲이란 深山幽谷에 아홉구비지는 溪谷을 말하며, 朝鮮時代 儒學者들이 經營하였다.

5) 국어대사전, 이희승 편저, 민중서림, 1988

6)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Encyclopedia Britanica, Inc., 1976

7) 造景學概論, Michael Laurie著, 崔杞秀譯, 神學社, 1985, P.1

8) Discovering the Vernacular Landscape, John B. Jackson, Yale University Prers, 1984, PP.5~6

의 經驗·감정·지난 날의 기억·상상·現在 狀況이나 意圖등에 따라 아주 다른 方法으로 景觀要素나 場所를 인식할 수 있다.

2. 景觀의 概念

지금까지 연구된 景觀의 개념은 自然的인 地表面의 構成單位나 視覺的으로 인식되어지는 構成單位에 있다. 이것은 지난 經驗이나 人間이 집착하여 왔거나 교육받아온 원칙과 哲學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으며, 景觀의 分析·評價와 價値에 있어 가장 重要的인 것은 고려되어지는 要素에 따라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첫째로 지리학자들이 地球表面을 큰 규모의 一定한 單位로 區分하는 地域的인 概念(regional concept)이다. 이 개념은 氣候의 類型에 의하여 分類되어지거나 認識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氣候는 地域의 景觀의 가장 元來的인 결정요소로서 全體的인 景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地域景觀의 主要 결정요소는 人間이 만들어낸 特질 뿐만 아니라 氣候·地質·地形·土壤과 植生들의 독특한 結合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나의 작은 區域으로 區分할 때는 그 地區의 침식형태, 물의 흐름, 토양 형태, 사람 뿐만 아니라 動物의 행동도 다른 景觀形態를 만든다는 개념이다.

두번째는 토지형태개념(land-form concept)으로 既存의 土地形態나 地球表面의 모양은 地殼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河川·氷河·바람과 파도에 의한 침식과 침전을 포함한 과거의 地質的인 變化過程으로 기인되었다. 이러한 土地形態를 視覺的인 특색에 따라 物理的인 單位로 인식되어지는 개념으로 어느 특별한 地域의 自然的인 특색과 構成을 視覺的이나 美的인 面의 고려로 物理的인 實體를 分類하는 개념이다.

다음으로는 어느 地域에 살고 있는 人間과 人間相互間이나 그들의 物理的인 環境이 다른 生態系는 다른 景觀形態로서 認識되어지는 生態的인 概念(ecological concept)이다. 景觀形態는 地形·氣候·地質이나 土壤에 의해 이루어지는 物理的인 環境에서 植物과 動物의 相互作用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각기 다른 景觀의 視覺的인 特性은 景觀 生態系 構成體의 相互作用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개념이다.

土地의 人間作用은 土地의 외양뿐만 아니라 物理·生態的인 狀態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土地利用은 自然生態系의 特性 범위에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기술과 경제적인 開發은 自然的인 限계를 벗어나는

人間利用目的에 적합하게 변경시킬 수도 있다. 自然要素나 文化要素들은 視覺的인 景觀형태에 重要的인 결정요소가 되며, 토지상태를 人間の 利用에 便利하도록 변경시킨 것으로 農村景觀, 漁村景觀, 草原景觀, 産業景觀, 都市景觀이나 山林景觀등으로 景觀을 土地利用에 따라 分類하는 土地利用概念(land use concept)이다.

유명한 歷史的인 사건이나 重要的인 藝術品은 文化遺産的인 景觀의 기초를 형성한다. 歷史的인 建物이나 地域, 歷史的인 흔적이나 背景은 文化遺産의 概念(heritage concept)으로 點的인 혹은 線的인 文化景觀을 造成하고 있다.

風景으로서 景觀의 개념(scenery concept)은 觀察者가 보았던 땅의 繪畫的인 質과 觀察對象에 대한 觀察者의 感情의 反應에 의해 表現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개념은 觀察者 앞에 전개된 混雜的인 體系의 生物學的인 構成要素사이에 관계가 아닌 全體視界에 놓여진 要素들에 의한 空間構成과 감각기관에 의해 느껴지는 효과등의 美的인 評價에 의해 판단되어진다.

마지막으로 公園과 庭園의 概念(park and garden concept)으로 歷史的으로 人間에 의해 造成된 住宅이나 公共建物을 주변과 조화시키기 위한 庭園이나 항공의 위락을 위해 조성된 公園으로, 여기서 얻어지는 景觀은 公園이나 庭園의 施設物 하나를 꾸밈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어울리는 그리고 그 地域에 합당한 材料나 植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아름답고 만족할 수 있는 環境은 設計家의 藝術的인 자질과 실제적인 지식에 의해 건전한 環境이 조성된다는 개념이다.

景觀의 개념으로 地域的·土地形態·生態的·土地利用·歷史遺産的·風景·公園과 庭園의 일곱가지 측면으로 分類하여 살펴보았다. 景觀은 視覺的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며, 景觀은 環境에 있어 物理的이고 生物學的인 要素 뿐만 아니라 人間行爲에 의해 기인되어진 變化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景觀을 理解한다는 것은 景觀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어떤 要素가 나타나며 그들은 相互 어떤 作用을 하고 있는가를 視覺的으로 판단·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景觀의 이해는 人間行爲를 위한 土地利用에 대한 自然科學과 應用藝術일 뿐만 아니라 歷史·經濟·社會學·人類學과 藝術的인 文化的인 視角을 가지고, 地質·土壤·植物·動物學·鑛物學등과 같은 自然科學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綜合的인 개념면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景觀의 質은 계속 변화하여 가므로 그러한 變化에 따라 質的인 發展을 위한 方法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III. 韓國의 傳統景觀

1. 傳統文化

여기에서 傳統文化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考察·研究하려는 景과 曲에 대해 살펴보고 한다. 近來에 와서 우리 社會는 급격한 變化를 겪고 있는 過程에 한쪽에서는 傳統文化의 繼承, 즉 우리의 것을 알아보고 새로운 文化를 創造하자는 말이 팽배하고 있다.

먼저 文化란 人間이 精神的·肉體的 活動에 의해 그 生活을 풍부하게 하고 向上시키려고 하는 努力의 所産을 말하며, 그 內容은 學問·宗教·道德·藝術등 광범한 것이다. 또 文化는 歷史的으로 이루어진 人間의 外面的의 그리고 內面的의 生活에 대한 諸樣式的 體系로서 한 社會의 構成員이 共有하는 것이다. 外面的의 生活이라고 하는 것은 行動으로서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은 人間뿐만 아니라 動物에게도 있으나, 內面的의 生活, 즉 行動의 規範·價値觀念·倫理觀 그 밖에 宗教·思想등은 人間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文化的 傳統을 문제삼을때에는 누구든지 서슴치 않고 儒敎文化를 말할 것이다. 儒敎는 그 바탕에 우리의 基調宗教인 사마니즘·道敎·佛敎·風水思想등을 깔고 朝鮮時代에 우리 조상의 思想的인 기초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生活에 오랜 歷史를 통하여 政治·文化·社會·經濟的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傳統景觀을 살펴보면 曲에 대해 살펴보는 소이도 바로 性理學의 自然觀과 宇宙觀·人間觀에 의해 情舍를 經營하였고 立地를 정했기 때문이다.

傳統이란 用語는 中國 固有의 것도 아니며, 外國語 tradition의 翻譯으로 이 말이 쓰이기 시작하였

다.⁹⁾ 傳統이란 一程한 社會集團에서 言語나 行動에 의하여 過去로 부터 전해내려온 것을 뜻한다. 그러나 tradition은 社會의 進展이 빨라서 새로운 것이 계속 發生하는 時期에 있어 過去로 부터 傳해져 내려오는 것을 좋게 發展시켜 지너가려고 하는 意味인 가치판단을 가진 用語로 변모되어 使用되고 있다.

傳統은 항상 變하는 것이며, 過去에 이루어져서 정지된 것이 아니고 動的인 것이며, 社會의 發展과 더불어 새로운 모습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傳統은 그 나라의 風土에 적합하게 成立되는 것이다. 風土는 문자 그대로 바람(風)과 흙(土), 즉 氣候와 土地를 뜻한다. 그러나 風土는 단순히 自然이 아니고 人間의 存在를 전제로 하는 自然, 즉 사람들에게 의식되고 그 生活·文化·産業에 영향을 주며, 또 사람들에게 의하여 가꾸어지고 變化되어가는 自然을 뜻한다. 風土는 自然科學的 對象이 되는 이데면 靜態的인 自然存在가 아니라, 生活樣式이나 風習으로 부터 藝術·宗教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人間行爲를 규정지을 人間의 事惟主觀 바로 그것을 형성하는 動態的인 環境인 것이다.¹⁰⁾

앞에서 살펴 본 景觀의 일곱가지 概念은 이곳에서 說明한 風土, 즉 人間이 自然을 特殊化하고 個性化하고, 그 특수한 自然이 人間生活 全體를 규제하는 作用과 反作用의 結果로 歷史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2. 景에 나타난 傳統景觀

언제부터 각 名勝地域에 아름다운 곳을 八景, 十景, 十二景이라고 불리워졌는지는 잘 알수 없지만 文人들에 의하여 景致가 수려한 곳을 지칭하여 이렇게 불리워 왔다. 漢陽八景¹¹⁾은 漢京識略에 보던 鄭道傳, 權近, 權遇의 詩에 나오며, 南山八景¹²⁾은 세종조의 文人 鄭二吾, 丹陽八景¹³⁾은 高麗末 禹倬, 李朝의 開國功臣 鄭道傳, 李朝 宣朝때 李退溪가 遊息하며 정하여 놓은 名勝地이며, 關東八景¹⁴⁾은 언제부터 불리워졌는지 모르지만 松江 鄭澈(1536~1593)

註: 9) 韓國과 東洋, 全海宗, 一潮閣, 1980, P.10

10) 東洋의 科學과 思想, 金谷雲 外 1人, 一志社, 1985, PP.11~12 11~14)

	漢陽八景 ¹¹⁾	南山八景 ¹²⁾	丹陽八景 ¹³⁾	關東八景 ¹⁴⁾
1 景	畿甸山河	雲水橫北	下仙岩	叢石亭
2 景	都城宮苑	橫漲南江	中仙岩	三日浦
3 景	列城宮苑	岩底幽花	上仙岩	清澗亭
4 景	諸署星拱	嶺上長松	龜潭峰	洛西寺
5 景	東門教場	三春日	玉筍	竹山樓
6 景	西江泊	九日觀燈	鳴潭三峰	鏡浦臺
7 景	西南行人	陟嶺	石門	望洋亭
8 景	北郊牧馬	浴溪	舍人岩	越松亭

이 45세때 江原道 관찰사로 가면서 關東別曲을 읊으면서 후세에 널리 알려졌다.

東洋畫에서 實景山水畫의 研究에서는 瀟湘八景¹⁵⁾을 아름다운 경치의 代表的인 例로 勝景의 상징적인 存在로 대두되어 理念化·理想化·觀念化되게 되었다. 山水畫뿐만 아니라 民畫로도 현재까지 傳하여지는 作品이 많이 있으며, 이 研究에서는 그림과 詩¹⁶⁾도 같이 104處 985景을 考察한 內容중에서 몇가지 例를 갖고 整理해 보겠다.

1) 象徴으로서 景

한 場所에서 景의 數를 가장 많이 使用한 숫자는 八字이다. 왜 八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 당시 中國의 사대사상에 의해 瀟湘의 여덟 경치를 읊었으므로 그대로 하였는지 아니면 우연히도 부를만한 경치가 항상 여덟개만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八道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全體를 가리키는 뜻으로 使用했으리라 생각되며, 사람의 根本을 삼는 8가지 德目, 즉 仁·義·禮·智·忠·信·孝·悌를 뜻하는 것에서 나올 수도 있다.¹⁷⁾ 東洋思想에는 洛書나 河圖 그리고 易과 五行思想에 근거를 두어 數로 表現하여 思考를 體系化시킨 것이 있다.¹⁸⁾ 숫자에서 1, 2, 3, 4, 5는 生數이며, 6, 7, 8, 9는 成數이다. 人間은 나 또는 우리를 中心으로 西方에 서로 均衡과 조화를 이루는 네가지 要素를 배열함으로써 中心이 온전해 질 수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우리는 運命을 점치는 것을 四柱를 본다고 한다. 자기가 태어난 年·月·日·時의 各 기둥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基本的인 4개의 뿌리이며, 나를 中心으로 四方에서 나의 運命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四隅라는 말도 있다. 나를 中心으로 四方四隅는 全體를 의미한다. 四方八方, 四通八達, 四柱八字를 使用하는 것은 八은 四의 倍數로서 重複의 의미, 즉 아름답다거나 아름다운 勝景이 많다는 강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十은 絶對的 完全한 數일 뿐만 아니라 꼭차서 넘치는 數, 바꾸어 말해서 모든 數를 낳는 母胎의 자리이기도 하다. 또 땅은 八方으로 나타내지만 上·下를 포함해서 10방으로 우주전체를 나타내는 의미

로서도 使用된다.

다음으로 使用된 12數는 十二支와 1年 12달을 상징하는 관념적인 數로 使用하였다.

故로 景에 使用한 숫자는 人間을 中心으로 均衡이 되게 하는 경우로 全體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나 관념적인 숫자를 使用하였던 것 같다.

2) 實體로서의 景

丹陽八景은 丹陽을 中心으로 周圍 12km內外에 小白山脈을 貫流하는 南漢江 上流를 끼고 있는 景勝地로 下仙岩, 中仙岩, 上仙岩, 龜潭峰, 玉筍峰, 鳴潭三峰, 石門과 舍人岩을 이른다. 이와같이 視覺으로 감지된 특이한 岩石들, 焦點이 되는 物體의 壯觀點과 幽玄美를 추상적으로 이름 붙여졌다.

이러한 視覺의 觀으로 관찰되어지는 물체는 관찰자의 인식된 經驗에 의하여 이미지화시킨 景觀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例는 京畿道에 永平八景, 江原道에 陟州八景, 楊口八景, 畫岩八景, 忠清道에 槐山八景, 寒山八景으로 岩·峰·潭·淵과 같이 지형의 특색에 이름을 부여한 것이다.

3) 自然現象으로서 景

自然現象에 대한 表現을 보면 우리 先人들의 강한 忍耐에 의한 自然美의 觀察과 극히 些少한 극히 一時的인 自然現象에 대한 美의 深求자세를 읽을 수 있다.

가장 表現 頻度가 많은 달(月)의 表現을 보면 孤月, 明月, 玩月, 弄月, 吐月, 賞月, 新月, 秋月등 그 景勝地와 어울리는 순간을 포착하여 달의 크기, 밝음, 時期와 觀察당시에 觀察者에게 보여주는 느낌을 나타낸다.

또 같은 물고기를 보더라도 우두커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작(魚躍), 같은 배(船)라도 돌아온다든가(歸帆), 가고 있다든가(行船)하는 動的인 形態美를 보여주며, 더불어 山川에 물든 樹木들을 보고 丹楓, 黃葉, 落紅이라는 表現에 의해 色調美를 보게 한다.

4) 人間의 삶으로서 景

어떤 場所, 어떤 위치에서 보여지는 빨래하는 아낙네(潭母), 밭에 밥을 내가는 아낙네(餵婦), 벼를 심는(插秧)풍경, 나무를 베면서 하는 소리(樵歌), 고기잡는 어부들의 노래소리(漁歌), 아침 밥짓는 연

註 15) 瀟湘八景은 中國 湖南省 洞庭湖의 南岸 零陵부근, 즉 瀟水와 湘水가 합쳐지는 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말한다.

① 山市晴嵐 ② 煙寺暮鐘 ③ 遠浦歸帆 ④ 漁村夕照 ⑤ 瀟湘夜雨 ⑥ 洞庭秋月 ⑦ 平沙落雁 ⑧ 江天暮雪 (韓國繪畫의 傳統, 安輝濬, 文藝出版社, 1988, PP.162~249)

16) 申叔舟의 保閑齋集 卷10에 「詩爲有聲畫 畫是無聲詩」에서 詩畫一律思想을 볼 수 있다.

17) 도시시대의 한국문화, 김형국, 나남선서, 1989, PP.99~110

18) 韓國古代美術文化史論, 朴谷淑, 一志社, 1988, PP.19~44

기(曉烟)등은 自然속에 人間의 삶이 용해되어 하나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즉 우리들의 삶은 自然과 隔意없는 對話로 어우러지는 生活임을 알 수 있다.

5) 景에 나타난 時·空間

景은 人間이 自然을 經驗하고 知覺함으로써 表現된 것이다. 景의 表現은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 어느 특정한 場所만을 表現하는 경우, 例를 들면 邊山八景¹⁹⁾중 熊淵約臺는 봄철에 來鮮寺 뒤에 있는 청련암에서 줄포로 부터 始作하여 곰소 앞 바다에 펼쳐지는 어선들의 행진을 나타낸 것이며, 또 自然景觀 자체가 지나치게 아름답거나 自然現象이 어느특징을 갖고 있는 곳에 드리워 질 때, 그 주변에서 보는 경우와 人工物에서 주변의 自然景觀을 보는 경우가 있다. 이 例로는 望洋亭은 關東八景중 하나에 속하나 望洋亭에서 보는 哀岩落照, 滄海魚笛, 飛峰松鶴, 斗檜明月, 二山江白鷗, 鷲峰秋雁, 春江漁船, 翠雲亭松濤의 八景이 있다. 이러한 空間의 위치 선정은 內·外何의 景觀의 고려에 따른 것으로 構造物의 터잡기에 필요한 技法이다.

景은 어느 특수한 場所에서 表現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조상들의 自然과 密着된 風流性을 엿볼 수 있다. 考察된 景에서 觀察者의 位置는 고정된 위치일 必要는 없지만 움직임이 없는 靜止된 狀態에서 自然의 관찰이며 深究이다.

時間으로는 하루 중 낮을 제외한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의 生活속에서 그리고 계절적으로 거의 여름은 없고, 봄, 가을과 겨울에 치우쳐 있음은 瀟湘八景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여름은 소나기(驟雨)나 녹음(漲綠)과 같은 表現을 使用함으로써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는 感興을 나타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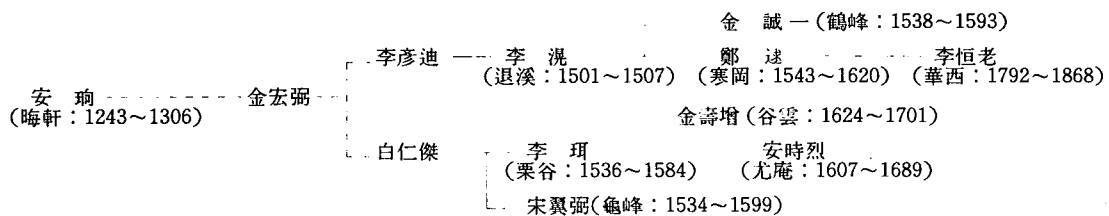
3. 曲에 나타난 傳統景觀

俗離山 國立公園의 華陽九曲하면 많이 알려진 溪谷으로 하나의 觀光資源으로 생각하고 있다. 문헌상으로 혹은 口傳되어오는 이러한 九曲이 研究者의 調査로는 16處에 16곡이 있다.

이 曲의 淵源은 性理學을 完成한 朱子가 54세에 武夷山 精舍에서 學問을 닦고, 또 儒學思想을 담은 武夷樞歌 十首를 55세에 지음으로 인해 우리나라 朝鮮時代 儒學者들이 中國의 南宋時代 朱子²⁰⁾(1130~1201)의 武夷九曲을 본따 九曲을 設定하였으며, 그에 따른 九曲歌나 九曲圖는 國文學이나 美術分野에서 繪畫 發達史나 당시의 語文學을 研究하는데 重要한 資料가 되고 있다.

朝鮮王朝는 建國과 더불어 그 국가이념을 儒敎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朱子學者인 安珦(晦軒: 1243~1306)이 들여온 性理學을 集大成한 朱子の 哲學, 自然觀과 生活態度를 詩歌나 九曲圖의 形成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조선중기 慵齋 成倪(1439~1504)의 수필집인 慵齋叢話에 의하면 安平大君 李瑬(1418~1453)은 서울 北門밖에 武夷精舍를 세우고 南湖가에 淡淡亭을 꾸며 天下의 좋은 그림과 글씨를 모았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 이러한 思想이 정착하여 표출되어지는 時期는 아무래도 朝鮮王朝가 낳은 최고의 性理學者인 退溪와 栗谷의 精舍²¹⁾經營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한다.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李滉의 「心郎理」학설을 옹호하는 主理派인 嶺南學派에서 李滉은 陶山十二曲의 詩歌를 作成하고, 竹溪九曲(慶北 榮豐郡 順興面), 仙遊洞九曲(忠北 槐山郡 齊川面)을 設定하고, 口傳되어오는 것으로 義城 金氏 問中에 半邊九曲(慶北 安東郡 臨河面), 鄭逮의 武屹九曲(慶北 星州

表-1. 曲과 관련된 性理學의 脈



註: 19) 邊山八景은 熊淵約臺, 直沼瀑布, 薛寺暮鐘, 月明霧靄, 西海落照, 彩石帆船, 止浦神景, 開岩古蹟이다. (부안의 일, 부안군 교육청, 1984)

20) 朱子行狀, 黃幹著, 姜浩錫譯, 乙酉文化社, 1988.

21) 精舍란 中國에서 傳來해온 바로는 生徒들의 教授하는 場所, 學舍, 塾, 書齋의 의미가 있으며, 「釋氏要覽」에서는 精練行者의 屋舍라는 佛敎의 의미도 간추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正山을 수양하는 곳이며, 또 학문을 가르치고 베풀 집으로 隱棲處士나 士人官僚인 儒學者들이 深山幽谷에 설치해 놓은 場所를 일컫는다.

郡과 金陵郡), 李恒老는 槩溪九曲(京畿道 楊平郡 西宗面)을 經營하였다. 「心郎氣」를 주장하는 李珣의 「氣發說」을 옹호한 主氣派를 畿湖學派라고도 하는데, 李珣는 高山九曲(黃海道 碧城郡 高山面), 宋翼弼은 朱子九曲(全北 錦山郡 朱川面), 金壽增은 谷雲九曲(江原道 華川郡 史內面) 그리고 宋時烈은 華陽九曲(忠北 槐山郡 青川面)을 設定하였다. 그리고 그 外에 牛耳洞 九曲(서울市), 龍湖九曲(全北 南原郡 朱川面), 用夏九曲(忠北 堤原郡 德山面), 臥溪九曲(忠北 安東郡 臨河面), 負葵九曲(全北 扶安郡 蓬山面), 雲仙九曲(忠北 丹陽郡 佳谷面), 武夷九曲(全北 慶朱郡 善川面)이 있다.

이 論文에서는 一例로서 華陽九曲을 가지고 研究·考察해 보고, 다른 九曲은 그 내용만을 언급한다.

(1) 立地

澤里志, 卜居總論 山水編에 “白頭山에서 太白山까지는 한줄기의 脈으로 통한 까닭에 둘 봉우리가 있다. 小白山이라는 脈이 자주 끊어지는데, 끊어지서 된 山은 俗離山이 처음이다. 壤興家는 속리산을 둘 火堤이라 한다. 그러나 둘의 형세가 높고 크며, 겹쳐진 봉우리의 洩洩한 둘 끝이 다보록하게 모여서 처음 피는 연꽃같고, 또 햇불을 멀리 밀어 세운

것 같다. 산 밑은 모두 돌로 된 골이 깊에 감싸고 돌아서, 여덟굽이, 아홉돌림이라는 이름이 있다.”²²⁾고 하였으며, 또 “靑嶺山이 內外 仙遊洞을 위에 두고 앞에는 龍游洞을 임하여서, 앞뒤 수석의 기절함은 俗離山보다 훌륭하다. 山의 높고 큰 것은 비록 속리산에 미치지 못하나 속리산같은 험한 곳이 없다. 흙으로 된 봉우리에 들린 돌이 모두 밝고 깨끗하며 살기가 적다. 모양이 단정하고 좋으며 태어난 기운이 나뉘어서 가려운 것이 없으니, 거의 仙境이다.”²³⁾라고 적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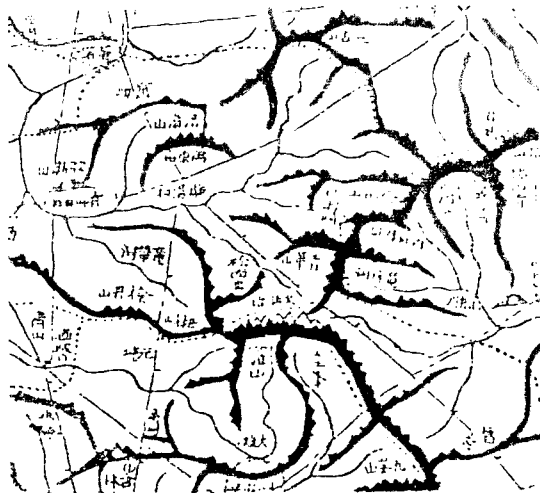
이 輿地인 華陽溪谷은 白頭大幹²⁴⁾인 俗離山과 동쪽의 靑嶺山, 靑嶺山의 北쪽에 支脈인 洛陽山으로 인요된 忠清北道 槐山郡 善川面 華陽里에서 山의 方向으로 남쪽으로가는 支脈인 道明山을 面해서 山出의 山脈인 龍湖의 溪谷을 끼고 10리에 걸쳐 펼쳐져 있는 勝景지대.

이 輿地는 華陽九曲은 高靈仁親廟부터 昭宗廟까지 山脈을 越過了 洞陽의 洞窟 允庵 宋時烈이 召命을 받아 造庭에 나갔다가도 사임하고서는 山水를 사랑하여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여러차례 하였다는 기록이 宋子大술에 傳해오고 있다.

華陽九曲은 卜居地로서는 적합하지는 않다. 朱子도 武夷九曲에서 武夷精舍만을 짓고 學問을 研鑽하는데만 전념하는 것을 본 밧았는지, 宋時烈도 四曲 金沙潭에 龍樓舍만을 짓고 學問에만 힘썼다.

澤里志에 “대저 山水는 精神을 즐겁게 하고 감정을 희장하게 하는 것이다. 살고 있는 곳에 山水가 없으면 사람이 昏(野)스러워진다. 그러나 山水가 좋은 곳은 生利가 많은 곳이 많다……기쁨진 땅과 넓은 물에, 지세가 아름다운 곳을 가려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좋다. 그리고 十里밖 혹은 반나절 길 쯤되는 거리에 경치가 아름다운 山水가 있어 매양 생각이 날 때마다 그곳에 가서 시름을 풀고 혹은 유숙한 다음 돌아올 수 있는 곳을 장만해 둔다면 이것은 자손대대로 이어나갈만한 방법이다.”²⁵⁾라고 되어있다. 그러니 華陽溪谷은 卜居의 必要充分條件으로 적당한 거리에 自然條件인 山水가 있으며, 주변인 華陽里에 社會條件인 人心, 經濟條件인 地理와 生利를 다 갖춘 輿地이다.

圖-1. 大同輿地圖에서 華陽洞의 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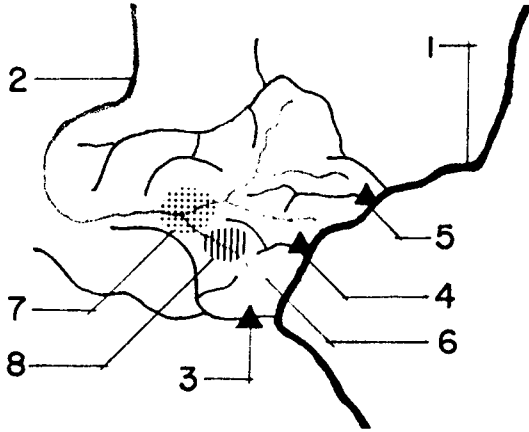
註：22) 擇里志, 李重煥 著, 李翼成 譯, 乙酉文化社, 1987, p.211

23) 前揭書 p.213

24) 白頭大幹은 山經表(朝鮮光文會 發刊, 大正 2年)에 白頭山으로 부터 現 大백산맥에서 小백산맥을 거쳐 智異山에 이르는 山脈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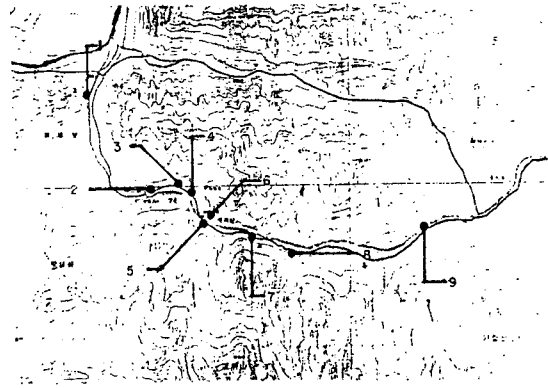
25) 澤里志, 前揭書 p.262

圖-2. 華陽九曲의 空間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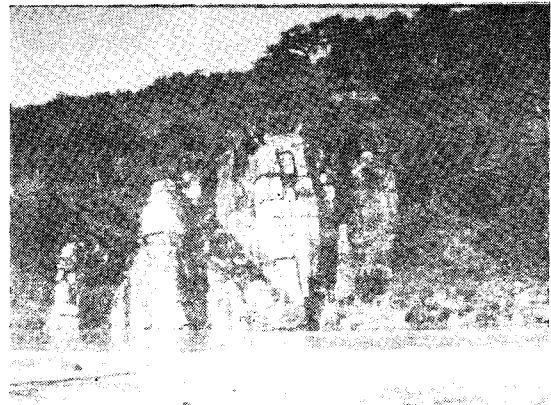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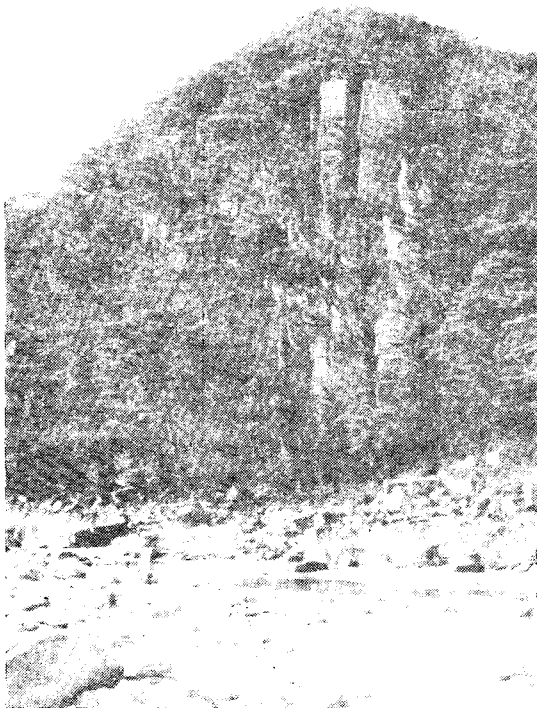
- 1. 白頭大幹 2. 達川 3. 俗離山 4. 青華山
- 5. 佛日山 6. 華陽川 7. 華陽洞 8. 華陽九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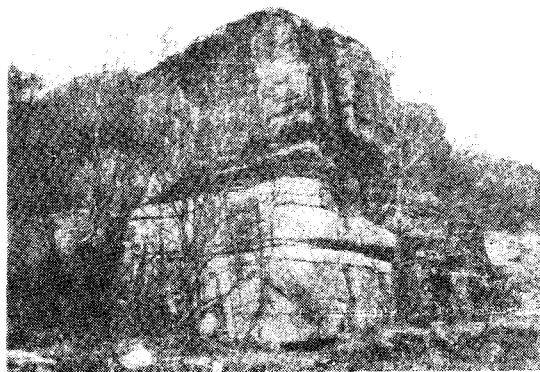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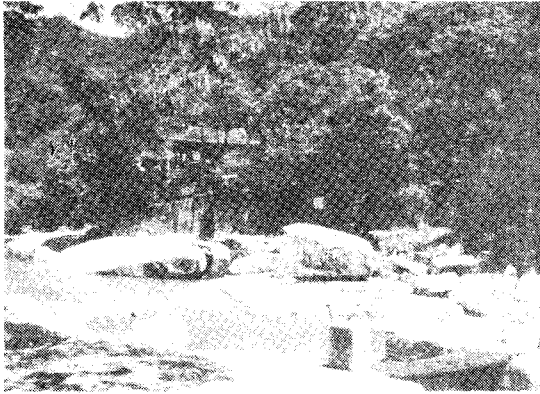
圖-3. 華陽九曲의 位置



- 1. 擎天壁 2. 雲影潭 3. 泣弓岩 4. 金沙潭 5. 瞻星臺
- 6. 凌雲臺 7. 臥龍岩 8. 鶴巢臺 9. 巴串

圖-4. 華陽九曲





左 上端에서 下端으로

第一曲 擎天壁, 第二曲 雲影潭,
第三曲 泣弓岩

右 上端에서 下端으로

第四曲 金沙潭, 第五曲 瞻星臺
第六曲 凌雲臺, 第七曲 臥龍岩
第八曲 鶴巢臺, 第九曲 巴串

2) 構成

中國 朱熹의 武夷九曲을 본 받아 華陽洞의 勝景에 九曲을 정하여 이름을 짓고, 丹岩 閔鎮遠의 글씨로 刻해 두었다. 圖-3에서 보면 1曲과 2曲사이에 宋時烈이 쓴 華陽洞門을 刻해 두었으며 尤庵의 號중에 華陽洞主가 있는 것으로 보아 華陽洞의 주인으로 자신의 거처로 삼은 곳임을 알 수 있다.

華陽川 下流에 華陽洞門 入口가 되는 곳에 怪岩 絶壁이 가파르고 길게 뻗히고 높이가 솟은 것이 하늘을 떠받드는 듯하다고 하여 붙인 擎天壁이 第一曲이다.

一曲에서 4~500m 程度 溪谷을 따라 올라가면 흐르는 물이 잠시 머무는 듯 하면서, 거울처럼 맑고 고요한 물결위에 지나던 구름도 잠시 머물러, 뜬 구름의 그림자가 맑게 비친다는 雲影潭인 第二曲에 다르다.

雲影潭 위쪽 溪谷에 둥근 넓은 바위가 있는데 尤庵이 효종 임금의 승하를 슬퍼하여 매일 새벽마다 이 바위 위에서 漢陽을 向해서 꿇어 엎드려 통곡하였다는 泣弓岩이 있다. 이 三曲에서 南쪽인 道明山 밑에 尤庵을 모시던 書院으로 1696년에 建立된 賜額書院인 華陽書院과 尤庵의 遺命에 따라 그의 제자 遂庵 權尙夏등이 임진왜란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明의 神宗과 毅宗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하는 萬東廟가 있다.

第四曲인 金沙潭은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물 속에 잠긴 모래가 금가루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華陽九曲중 가장 뛰어난 景勝地이다. 물가에 큰 盤石이 있고, 朱子의 雲谷精舍를 본따 尤庵이 巖接齋를 老松이 우거진 奇岩위에 造營하였다. 그 후 尤庵은 다음과 같은 詩를 남겼는데, 그 詩를 통해 巖接齋의 立地와 형태 그리고 그의 生活態度를 볼 수 있다.

溪邊石崖關 作室於其間
靜坐尋經訓 分寸欲躋攀

시냇가에 바위벽이 열리어
그 사이에 집 한칸을 지었네
고요히 앉아 성인의 교훈 받들어
한치라도 더위잡고 올라 보려네

巖接齋에서 層岩이 겹쳐 竈를 이루어 별을 관찰할 수 있다는 五曲인 瞻星臺가 바라다 보인다. 巖接齋 옆 石壁에 陰刻한 「忠孝節義」는 明나라 太祖의 御筆이며, 「蒼梧雲斷 武夷山空」은 尤庵의 글씨이다. 瞻星臺는 높이가 10여 m 되는 岩壁인데 그 곳에 明

의 神宗과 毅宗, 朝鮮朝의 宣祖 그리고 尤庵이 쓴 필적이 刻되어 있다.

瞻星臺에서 溪谷 반대편에 큰 바위가 제6곡인 凌雲臺인데, 큰 바위가 우뚝 서 있는 모양이 마치 구름을 뚫고 솟아 오른 듯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 瞻星臺에서 凌雲臺를 지나 視線을 멀리두면 溪谷에 면해서 바위모양이 마치 龍이 꿈틀거리며 누워있는데 이것을 命名하여 第七曲인 臥龍岩으로 하였다.

제8곡은 青鶴이 집을 짓고 새끼를 길렀다고 傳하여 지은 곳으로 鶴巢臺이다. 계곡가에 우뚝 솟은 奇岩絶壁에 老松이 울창한데, 푸른 鶴이 여기에 깃을 들이고 새끼를 길렀다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지막으로 9曲인 巴串을 거리상으로 8曲과 상당히 떨어져 華陽川 上流에 있으며, 溪谷가운데 회고 넓직한 바위가 펼쳐져 있는 위를 물이 흐르고 있다.

3) 構造

各 曲은 華陽川邊에 岩石이 절묘하고 특색이 있는 場所를 曲으로 命名하였다. 下流에 제1곡을 두고 그것을 지나쳐서 2曲사이에 華陽洞門이라고 陰刻을 해놓은 것이 특색이며, 武夷九曲은 上流가 1曲이고 下流가 卅村인 9曲이어서 武夷九曲에 보면 各曲마다 道를 닦아 經世治民하겠다는 思想이 있는데 그것과 反對이다.

對象物은 點的인 物體와 面的인 場所로 區分될 수 있는데 點的인 物體中에 垂直的인 對象體는 1,5,6曲과 8曲이며, 水平的인 對象體는 3曲과 7曲이다. 또 面的인 場所의 의미를 가진 곳은 2,4,9曲이다.

또 視覺上으로 1曲과 2曲, 8曲과 9曲은 相互視界에 들지 않지만 2曲에서 8曲까지는 연속성이 있다. 4曲과 5曲사이는 景觀도 가장 수려할 뿐 만 아니라 4曲 암반위에 위치한 巖接齋는 南向으로 立地했으며, 그 맞은편에 瞻星臺와 視覺的인 焦點을 이루고 있다.

IV. 結 論

西洋 傳統哲學은 철저히 實體論的(substantial) 바탕위에 서 있다. 실체론적이라 함은 무엇이 궁극적으로 存在한다는 思想이다. 「뉴우톤」의 粒子이든, 中世紀의 神이든, 칸트의 物 자체이든, 西歐 哲學은 있다는 실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實體는 非實體的인 것과 구별되어 實體와 非實體 사이에 二元論을 成立시켰으며, 自然히 非實體的인 것은 實體的인 것에 始源的이 되고 말았다. 歷史를 自然에서 분리시키고, 마음을 몸으로 부터 分離시키는 物心二元論的으로 생각해온 것은 「데카르트」 이후 서

양哲學에 나타난 典型的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르트르」는 그 自體안에 있는 存在(being itself)와 그 자체를 위한 存在(being itself)를 分離시킴으로서 自然 혹은 世界와 兩立化시켰다.²⁶⁾ 朱子는 「武夷精舍雜詠並記」에서 “…… 대저 밝고 어두운 것과 아침·저녁 노을의 다름과 안개와 초목이 여러 모습이며, 인간의 모양과 원숭이나 새들의 울부짖음에 이르기 까지 하루종일 여러가지로 변하여 다 알 수가 없다……”²⁷⁾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論議하려는 것은 우선 視覺으로 知覺·認識되어지는 實體이다. 그 實體는 美學的 理論인 調和·對比·리듬과 統一의 理論이 아닌 實體와 人間 속에 內在해 있는 思想을 부여한 非實體로서의 實體이다. 그 實體를 視覺적으로 인식하게 하면서 非實體로서 人間의 內面的인 思考를 부여한 實體인 점이 韓國傳統景觀의 對象으로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색은 景觀은 단지 視覺적으로 감상되어지는 것 보다 機能에 따라 읽혀지고 설명되어지는 것이 景觀에 대한 하나의 지침이라고 했으며, 완전한 理解는 文化·社會·經濟 그리고 政治的인 맥락이 認知된 가운데에 機能을 압으로써 증진되어진다고 하였다.²⁸⁾ 그러나 우리 조상은 무엇보다도 人間이란 그 자체로서 하나의 小宇宙이며, 동시에 小宇宙인 自然과의 관계속에서 人間은 存在로서의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으로 사고하였다. 이런 연유로 人間이 삶을 위해 그의 環境을 造成할 때 우주²⁹⁾의 질서를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조성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人間存在構造와 宇宙構造를 관련시켜 그의 環境에 상징적 意味를 부여한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의 傳統住居空間에서 마당은 특별한 장치가 첨가되지 않은채 노출된 토양의 상태로 유지되어 왔으며, 모든 房들은 이 마당을 향해 위치되어 있다. 텅빈 마당의 非治穢性은 땅의 원초적인 모습을 강건하게 드러내며, 하늘의 변화를 가시없이 수용하여 自然의 여러 모습을 강하게 傳達해 준다. 그러므로 마당은 밝음, 어두움, 눈, 비등 하늘의 표정을 받아들이는 그릇이며, 하늘과 땅을 가운데 두고 建物이 이를 둘러싸듯 하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땅과 아버지로서의 하늘과 자녀로서의 人間이

함께 어루러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³⁰⁾

慶北 安東郡 臨河面의 半邊九曲에서 芝村 金邦杰 宗宅이 있는 知禮는 五指彈琴形(선인이 가야금을 뜯는 風水說上의 形局)의 形局을 갖추었다고 한다. 祖山이 되는 鶴岐山에서 뻗은 龍(山脈)이 마을의 뒷산, 즉 主山이 되는 嶺芝山에서 다섯 줄기로 내려오며, 知禮 앞에는 뿔대산(425m)이 마치 탑의 형상으로 우뚝 서 있다. 半邊川은 크게 마을 앞에서 휘감아 돌아 破水口가 보이지 않는다. 全體적으로 半邊九曲의 地形의 要素는 主要 地勢를 형성하고 있는 鶴岐山, 藥山, 臥龍山으로 風水的 局面을 갖추고 있으며, 半邊川에 半邊九曲의 全體的인 空間을 형성한 가운데 知禮는 그 마을 자체로 嶺芝山과 뿔대산으로 마을의 空間을 형성하여 穴이 되는 地埵인 陽宅에 宗宅을 앉히고 마을이 構成되었으며, 북쪽에 祭廳을 세워둠으로 마을이 형성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傳統住居와 傳統 마을은 機械的 機能主義에서 意味하는 實用이라는 機能보다는 象徵的意味의 實踐的 具現이 더 중요한 價値로서 作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象徵은 實際의 構造와 存在 樣態를 表現 할 뿐만 아니라 人間의 삶에 궁극적 의미를 부여한다. 즉 象徵은 人間存在構造와 宇宙構造를 관련시키는 것으로 象徵의 思想은 人間存在의 根源的인 思考方式이다. 結局 先人들은 物理的 環境에 추상화·상징화 過程을 거쳐 삶의 의미를 구현하였던 것이다.

진동마을은 風水說에 의한 左 靑龍, 右 白虎, 前 朱雀, 後 玄武와 같이 하나의 空間, 즉 局을 이루어 형성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九曲의 경우는 山脈에 의하여 둘러싸여진 空間으로 큰 名山의 枝脈에 의하여 둘러싸여진 空間이며, 그 山脈의 流域에 의해 이루어진 河川의 上流에 位置를 잡고있다. 그것은 우리 先人들의 山嶽崇拜思想에도 기인했겠지만, 朝鮮社會의 文人들이 隱遁思想에 의해 深山幽谷을 隱遁生活의 目的이 아닌 수단으로 自然을 擇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空間이란 우주 가운데의 어떠한 위치를 말하며, 人間生活이란 空間 가운데서 存在하며 時間가운데서 연속되는 것이다. 地理學者인 D.V. Meinig³¹⁾

註: 26) 한 철학 한국철학의 정신학적 해석, 김성일, 전망사, 1985, p.12와 p.35

27) 朱子大全 卷9

28) Discovering the Vernacular Landscape, J.B. Jackson, Yale University Press, 1984, p.x

29) 宇宙란 字義面에서 볼 때, 一은 家屋의 上蓋를 表示하며, 이에 存在의 場所를 表示하는 子子를 結合해서 空間의 世界를 意味하게 되고, 또한 모든 動作의 來歷을 表示하는 由由를 結合해서 時間의 世界를 意味한다. (美學, 白琪深, 서울대 出版部, 1979, P.174)

30) 士大夫家의 空間圖式的 特性, 이원교, 建築 環境, 1986. 8., PP.44~45

31)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s, D.W.Meinig, ed., Oxford Univ. Press, 1979, P.3

은 場所는 一般의 限定的 地域 혹은 고정된 위치를 말한다고 했으며, Edward Relph³²⁾는 “위치는 단지 장소에 대한 맥락에서 제공되어지는 공간을 가진 부수적인 것이다.”라고 했다. 또 Yi-Fu Tuan³³⁾은 經驗에서 空間의 의미는 場所의 방어로 부터 空間의 개방, 자유와 협박을 알 수 있다. 더욱이나 우리는 空間을 움직임을 허락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場所는 멈춤을 나타낸다. 움직임에서 멈춤은 위치를 場所로서 변경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空間은 場所의 相對的인 位置, 場所와의 분리나 연결하는 距離 그리고 다소 추상적으로 場所의 體系에 의해 指定된 地域으로 多樣하게 經驗 할 수 있다.

景에서 對象은 自然條件이 좋은 場所를 擇하거나 特異한 地形條件을 갖춘 곳을 擇하며, 그 곳에서 순간적이거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自然現象 또는 日

常生活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거나 삶의 風流가 되어 視聽에 의해 知覺·認識되어지는 것이다. 景은 一定한 場所에서 일어나는 諸 現狀이나 狀況일 수도 있으며, 觀察者가 대상체를 보거나 대상체에서 관찰되었던 지점으로 위치 변경에 의한 諸 狀況일 수도 있다. 景은 場所的인 概念이 強하며, 二次元的인 空間에 개념화된 물체이거나 실체이며 三次元的인 形態를 가질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의미, 특질과 독자성이 集中되어 있는 點이다. 우리 先人들은 景과 曲에서 視·聽覺으로 認知되는 實體나 形態, 어떤 特性이 있는 場所, 時·空間的인 位置에 따른 自然現象을 視察者가 知覺·認識하여 마음의 心象(image)과 情緒(feeling)를 表出하는 五次元的인 空間을 형성하였다.

參 考 文 獻

1. 姜浩錫(1988)譯, 朱子行狀, 黃榦著, 乙酉文化社
2. 金容雲 外 1人(1985), 東洋의 科學과 思想, 一志社
3. 김상일(1985) 한 철학-한국철학의 정신학적 해석, 전망사
4. 김형국(1989) 도시시대의 한국문화, 나남신서
5. 朴容淑(1988) 韓國古代美術文化史論, 一志社
6. 白琪洙(1979) 美學, 서울大學校 出版部
7. 白琪洙(1985) 美學序說, 서울大學校 出版部
8. 손경석(1976) 한국의 산천, 교양국사총서 편찬위원회
9. 安輝濬(1988) 韓國繪畫의 傳統, 文藝出版社
10. 李翼成(1987)譯 擇里志, 李重煥著, 乙酉文化社
11. 이원교(1986) 士大夫家의 空間圖式的 特性, 建

築과 環境, 8月號

12. 全海宗(1980) 韓國과 東洋, 一湖閣
13. 崔杞秀(1989)譯 造景學概論, Michael Laurie 著, 明寶文化社
14. 韓國造景學會(1986) 造景計劃論, 文運堂
15. 邑誌
16. 郡誌
17. Calder, Winty(1981) *Beyond the view*, Inkata Press
18. Jackson, J.B.(1984) *Discovering the Vernacular Landscape*, Yale University Press
19. Meinig D.W.(1979) (ed.)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s*, Oxford University Press
20. Relph, E.(1976) *Place and Placeless*, Pion
21. Tuan, Yi-Fu(1977) *Space and Place*, Univ. of Minnesota

註: 32) Place and Placeless, E. Relph, Pion, 1976. p.8

33) Space and Place, Yi-Fu Tuan, Univ. Of Minnesota Press, 1977. p.29